

부산 스포츠 신문

Vol. **38**
2023. 06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인

태권도 정신으로 세계를 물들이다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상진 회장

영광의 인물

꾸준함이 만들어 낸 근사한 인생 2막
테니스 강상연 원로

부산체육의 미래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금빛으로 물들이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펜싱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북구민의 든든한 스포츠 동반자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BSC 뉴스

-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부산체육인

태권도 정신으로 세계를 물들이다

-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상진 회장



영광의 인물

꾸준함이 만들어 낸 근사한 인생 2막

- 테니스 강상연 원로



부산체육의 미래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금빛으로 물들이다!

-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펜싱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북구민의 든든한 스포츠 동반자

-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



BSC 뉴스

-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태권도 정신으로 세계를 물들이다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상진 회장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외동인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품새를 통한 자아수련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같은 사회성을 길러주죠

전 세계적으로 'K-문화'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이미 앞서 K-문화를 선도한 스포츠가 있다. 세계 210여 국에 보급된 국기(國技)인 태권도다. 태권도 외교사절단으로 앞장서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김상진 회장. 그는 2007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태권도를 후원해오고 있는데, 기금을 포함해 선수들의 훈련비용을 사비로 일체 지원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이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때였어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아이들의 아픔을 태권도를 통해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후원 덕분에 아프가니스탄의 라홀라 닉파이 선수는 베이징과 런던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현재도 에티오피아 명예영사로 활동하며 에티오피아 최초의 태권도 대회를

만들었으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가에 성금을 기부하며 태권도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김상진 회장이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바로 태권도 정신이 오롯이 전해지는 것. 김 회장이 말하는 태권도 정신이란 무엇일까?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고, 외동인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품새를 통한 자아 수련은 아이들에게 협동심과 같은 사회성을 길러주죠.”

남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자세 역시 품새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품새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만큼 김상진 회장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총 단장을 역임하면서 선수들과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등 태권도 정신의 모범을 보였다.

“태권도 지도자는 훈련할 땐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합에서는 선수를 최고로 모셔야 합니다. 선수마다 격려해주고 컨디션이 어떤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한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상진 회장. 태권도 외교사절단으로서 걸어 나갈 그의 눈부신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꾸준함이 만들어 낸 근사한 인생 2막

테니스

강상연 원로

저는 암을 극복한 후에도
테니스클럽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성들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강상연 원로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어떤 스포츠든 자신 있게 즐길 수 있는 근사한 황혼을 열어주었다. 강 원로는 평소 스키, 수영, 롤러스케이트 등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스포츠를 즐겼는데, 40년 전 우연히 동생의 추천으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한 달간 배우게 되었는데, 남편은 학교 팀에 들어가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저는 여자란 이유로 한 달 배운 것만으로는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강상연 원로는 포기하지 않고 옆 초등학교 마당에서 홀로 벽과 연습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그 클럽에서 강상연 원로에게 영입을 요청하면서, 테니스는 그녀 인생의 소중한 인연으로 자리 잡았다.



“12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이라는 병을 한 번 겪고 나니 주변에서 운동을 만류 하더라고요. 저는 암을 극복한 후에도 테니스클럽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성들을 위한 시니어클럽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죠.”

지금도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은 테니스를 즐긴다는 강상연 원로. 그녀는 테니스와 관련된 각종 대회에서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것은 물론 최고령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최고령상은 대회에 참가한 시니어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가장 큰 상’이다.

“저는 팔, 다리, 정신이 받쳐주는 한 지금처럼 운동하면서 살아가 보려 합니다. 알프스를 넘은 나폴레옹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잘하느냐, 못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코트에서 상대방과 밸런스를 맞춰 수준에 맞는 게임을 즐기면 되니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녀 같은 순수함 속에도 확고한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있는 강상연 원로. 앞으로도 테니스 클럽의 영원한 선배로 멋진 활약을 이어갈 그녀를 기대해본다.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금빛으로 물들이다!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펜싱부 플러레 종목 검객들의 금빛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취미를 통해 펜싱을 시작한 학생들이 전문선수로 활약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단체전 2연패 달성은 물론 올해 처음 진행된 개인전(김민결 선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현재 거점스포츠클럽 펜싱부에서는 플러레, 에페 2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9명, 6명의 초·중학생들이 전문선수로 진로를 선택하고 활동 중이다.

거점스포츠클럽은 적어도 5~7년 동안 같은 선수와 지도자가 호흡을 맞출 수 있기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훈련할 수 있기에 더욱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누구보다 펜싱을 즐기고 있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펜싱부 선수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북구민의 든든한 스포츠 동반자

부산광역시북구체육회(이하 북구체육회)는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상 가까이에서의 체육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다. 북구는 부산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고령화 지수가 높은 지역인 만큼 노년층을 대상으로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무료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양생활체육관에서 무료 배드민턴 교실 운영, 직장인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1인 1스포츠를 독려하고 있다.

북구체육회는 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금빛노을브릿지’를 적극 활용한 해달맞이 체조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활기찬 아침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상과 지역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구민의 든든한 스포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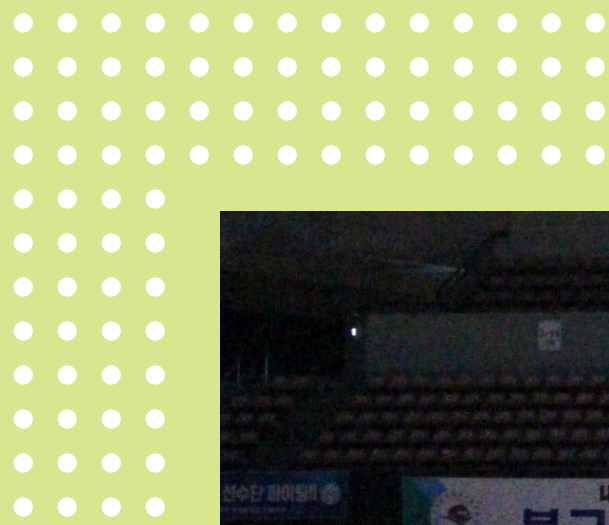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 개최

공공기관·단체 26개팀, 700여 명의 직장 축구 동호인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5월 13일(토)부터 14일(일) 양일간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에서 공공기관·단체 26개 팀, 700여 명의 직장 축구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제2회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Expo-Kick Match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대회 결과 부산소방재난본부팀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부산경찰청팀은 준우승, 부산광역시청팀과 부산교통공사팀은 공동 3위를 각각 차지하여 대회 트로피와 부상으로 상금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기원과 동시에 영남지역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가 스포츠로 하나 된 이번 행사에 의미가 뜻깊다.”면서 “건강한 직장 생활과 여가선용은 물론 기관 간의 상호교류 및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 9개 종목 1,500여 명 참가

부산 어르신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18회 어르신체육대회가 지난 5월 12일(금)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어르신체육대회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 등 6개소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9개 종목(국학기공 외) 1,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대회가 어르신 체육동호인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어르신 동호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